**사랑하는 보내는 선교사님**

눅11장의 주님의 기도를 배우며 기도로 안부를 나눕니다.

계절이 바뀌고 이상 기온과 잦은 폭우와 뇌성을 동반한 집중호우와 우박으로 피해가 잦은 가운데 교제하고 있는 영혼들의 주변 사람들이 농작물 피해와 F 부인 남동생의 아들 친구가 지난 금요일 저녁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유리로 만든 정류장에 쇠로 만든 광고판이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아침 6시30분에 집에서 출발해서 F 부인 부부를 태우고 아야쉬에 가서 아침 식사를 하고 텃밭에 물도 주고 F 부인은 토마토와 고추 모종을 심으려고 했는데, 텃밭에서 만나기로 한 F부인의 이혼한 여동생 S의 아들이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38살로 결혼해서 6살, 2살의 가장이었습니다. 제가 사는 도시에 살던 아들은 아침 7시쯤 일어나서 심장이 아파서 응급차를 부르고 병원으로 갈려고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쓰러졌고 구급차 안에서 40분 동안 심장마사지를 했지만 숨졌고 회교의 장례는 대부분 당일 매장이라 아야쉬의 공동묘지에서 준비를 했는데, 폭우로 침수된 도로의 통제와 교통체증이 심해서 사원에서 진행하는 장례식과 매장에 소요될 시간을 예상할 수 없고 비도 오고 밤에 집으로 가서 다음 일정의 약속은 지방으로 가는 비행기 시간을 맞추어 돌아왔습니다. E시 사라의 여동생 매리앰이 왼쪽 발목에 금이 가 깁스를 한 상태로 동행을 약속해서 23:55 출발의 절차를 마치고 기다렸는데, E시에도 폭우로 공항이 정전으로 착륙이 안되어서 다음날 새벽4시에 연착 출발해서 친구네에 도착하니 토요일부터 인터넷 연결이 끊어졌고 오늘 5일만에 복구되었습니다. 지난해에 항공편으로 올 때도 연착과 다른 도시로 출발하여 비행을 취소한 경험이 있고, 걷기가 불편해서 휠체어로 이동하는 매리앰도 있어서 바람막이와 청바지를 입어도 추운 공항에서 오래 두고두고 얘기할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든 것에 감사하자고 하면서 1주일의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소식에 나누었던 월세 인상은 H부인의 첫째딸이 변호사가 되면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4월에 집주인과 통화하고 법적으로 연25% 인상이지 물가상승을 고려해서 집주인이 원하는 20,000이 아니라 60%인상한 금액을 송금하겠다고 했더니 집주인이 돌려보내겠다고 해서 변호사가 그러면 다시 송금할 때는 25% 인상한 금액을 보내겠다고 했고 6월 1일에 60% 인상한 13,600을 송금했는데 오늘까지 집주인에게서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집주인은 저에게서 월세를 받아서 장학금을 준다고 했는데 월세 문제가 이대로 마무리되어서 안정되기를 바랍니다.

지난해에 농업고등학교와 협업해서 (한국)무를 심어서 판매할 때 응원해 주던 사역자가 (미국시민권자 한국인) 같이 기도하는 싱가폴에서 온 여성 사역자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유기농 비료회사의 직원으로 거주증을 받고 있는데 지진 피해지역 가까운 곳에서 농업 관련 사역을 시작했고 7월에 싱가폴에 가서 재정 후원을 받아오면 센터를 지어서 여성들에게 기술을 전수하면서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과 저의 은사가 쓰임 받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아야쉬에 가서 제가하고 있는 텃밭과 땅을 보면서 하반기에 심을 농작물과 유기농 비료를 사용한 시험재배의 결과를 보자고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선하고 순적하게 연결해 주시기기를 기도해 주세요.

올 하반기에는 F부인의 형제들이 가진 아야쉬의 묵혀 있는 넓은 땅을 기경하여 제가 농작물을(한국 무, 들깨, 메주콩 등) 심고 유기농 비료의 시험재배를 하는데 이들이 동의하고 협력하면서, 슬픔을 당한 샤디에와 어린 손주와 젊은 며느리에게 아픔을 잊고 삶의 소망과 경제적으로 도움도 되는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기도해 주세요. 흑암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구원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가 생기기를, 저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기도하는 영혼들의 심령에도 흐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텃밭을 통한 농업 관련 사역으로 싱가폴 사역자와 협력해서 한국에서는 먹는 고추 잎과 무청, 고구마순, 마늘종, 호박잎, 고들빼기 등을 식품화하고 교육하는 일을 통해 여성들을 만나는 향후의 사역에 동역자님들도 기대와 기도로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땅의 거주비자를 받는 것이 점점 까다로워지면서 현재 이민국 규정은 관광비자로 연장하는 것은 6개월씩 2회까지라고 합니다. 이 나라에서 규정한 일정 금액의 주택을 구입하면 1년씩 연장하는 거주증을 발급받을 수 있어서 사역자들이 빚을 얻어서라도 주택을 구입하는 추세입니다.

저는 안식년 일정을 수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9월부터 12월까지 한국에서 재교육과 충전을 계획했는데, 저의 거주비자가 12월까지는 안정적이라 올해도 일시귀국으로9월 중순부터 10월 하순까지 일시 귀국하려고 합니다. 저는 현지인들과 약속한 함께하는 일정을 위해 할인 항공권 행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1월에 거주비자 연장을 신청하고 결과에 따라 내년의 계획을 준비하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역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나라 경제정책이 국민소득이 감소하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있는데 전기자동차와 무인항공기, 무인 장갑차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쓰레기를 분리 배출하지 않는 이 나라도 지구 온난화를 야기한 세대가 감당해야 할 이상 기온과 기후 변화를 위해 쓰레기와 플라스틱을 줄이고 자원의 재활용하는 나라가 되는 정책이 세워지고 동참하는 국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집니다.

새롭게 연결된 영혼들과 기존에 만나는 영혼들의 회심을 위해 잊지 말고 간구해 주시고, 주의 뜻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제가 쓰임 받기를 원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구원을 감격을 잊지 않는 사역자로 살면서 이 땅의 무너진 곳을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을 거절하고 문전 박대를 당하고 재정적인 압박으로 어려웠던 3개월은 주께서 새로운 것을 예비하신 것을 깨닫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뢰하며 잠잠히 기도하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E시에 있는 1주일 동안 이곳에서 교제하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도를 나누기를 바라며,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기적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동역하는 사랑하는 보내는 선교사님들의 기도와 후원이 함께 하는 소식들을 전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2024. 6. 13. 김에스더 드림